

‘현우경’ 이야기 (25)

5명의 상인을 살린 늑나사야

어느 나라에 늑나사야라는 상인이 있었다. 그는 나라에서 제일가는 큰 상인이었다. 어느 날 늑나사야는 숲에 들러 산책을 즐기 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는 거지?”
늑나사야는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나무에 밧줄을 묶고 목을 매 죽으려고 하고 있었다. 늑나사야는 깜짝 놀라 뛰어갔다.
“자네는 왜 죽으려고 하는 것이요? 사람의 몸을 얻고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시오?”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지나가 던 길을 가십시오.”
“누구나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죽음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다고 목숨을 허탈하게 여겨 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소.”

늑나사야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타일렀다.
“저는 빛을 너무 많이 쬐었습니다. 살면서 돈을 갠아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매일 같이 빗쟁이들이 저를 찾아와 괴롭힙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려는 것이니 상관 마십시오.”
늑나사야가 말했다.
“지금 바로 나무에서 내려오면 그대가 진 빛을 내가 다 갠아주겠소.”
그는 늑나사야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는 늑나사야의 말이 진심임을 깨닫고 나무에서 내려왔다.
“정말 제 빛을 다 갠아주시겠단 말입니까?”
늑나사야는 그와 함께 빗쟁이들을 찾아 갔다. 그리고 그의 빛을 일일이 다 갠아주었다. 마을에 이 사실이 금방 퍼져나갔다. 나머지 빗쟁이들도 늑나사야를 찾아와 자

바다에 자기 몸 던져 따라간 사람들 구제



삽화·강병호

신이 빌려준 돈을 받아갔다. 늑나사야의 재물은 빛을 갠아주다 점점 떨어져 갔다. 하지만 빛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늑나사야의 부인과 자식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구걸을 다녀야 했다. 가족들은 늑나사야를 몹시 원망했다.
“저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의 빛을 갠아주다가 자식들이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당신은 미쳤습니다. 어째서 재물을 그 사람을 위해 다 탕진한단 말입니까?”
그때 어떤 상인들이 늑나사야를 찾아왔다. 그들은 늑나사야에게 제안했다.
“제가 보물이 있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보물을 찾으려 하시겠습니까?”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할 텐데, 저에게는 배를 살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지려고 합니까?”
“현재 5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모두 돈을 합하면 배를 장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늑나사야는 상인들의 제안에 승낙했다. 늑나사야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대들도 나를 따라 보물을 찾으러 가겠는가?”
그때 5명의 상인들이 늑나사야의 말에 승낙하며 보물을 찾기 위해 떠나났다. 늑나사야와 500명의 상인들은 모두 3000냥의 돈을 모았다. 1000냥은 배를 구입하고, 1000냥은 양식을 준비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냥은 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
일마 후, 출항할 준비를 마친 이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항해를 한지 며칠이 지나 폭풍이 불어 닥쳤다. 매서운 파도

는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것 같았다. 결국 배는 난파당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며 살려달라고 외쳤다.
그때 늑나사야를 따라온 5명의 상인이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믿고 이 배에 탔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늑나사야가 말했다.
“큰 바다는 사체를 바다에 묵히지 않는다고 들었소. 나를 붙잡으시오. 내 몸을 바다에 보시하고 당신들을 구제해 주겠소.”
늑나사야는 칼로 자신의 심장을 찔렀다. 그가 죽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다. 5명의 상인들은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게 됐다. 죽음의 고비에서 큰 자비심을 낸 늑나사야는 시간이 많이 흘러 부처로 태어났다. 또한 늑나사야가 살린 5명의 사람들은 번뇌의 큰 바다를 건너 바른 법을 얻게 됐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27)

-산더미 같은 보물-

구성·김흥민

옛날 인도에 '다미사'라는 왕은 어느날 보물을 쌓아두고 보시를 하였다.

성군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보물은 줄지않았다.

부처님은 다미사왕을 제도할 생각으로 한 청년으로 변신하여 그 앞에 섰다.

이거면 집 한 채 지을거야!

그런데 청년은 보물을 내려놓았다.

집은 짓겠지만 소와 농사지를 땅을 사기에 부족하기에 포기합니다.

그럼 두배로 주지! 옛대!

청년은 보물을 또 내려 놓았다.

그럼 세배로 줄게!

청년은 다시금 내려놓았다.

자식을 시집장가 보내려면 그래도 모자랍니다! 사양하겠습니다.

거 참! 욕심이 풀이없군!...

알았어! 이거 다 가져가! 그럼 됐지?

그럼 다섯배로 주지!

청년은... 아니! 왜~!?

인생은 덧없이 짧고 인연이 겹쳐감에 따라 근심과 괴로움은 커가는데 산더미같은 보물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차라리 도를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왕은 비로소 그가 부처임을 알았다.

보물을 산처럼 쌓아도 깨달음을 얻은 것만 못하네. 아하! 착한 착한! 미친자의 행실이니라!

부처님은 떠나며 계승을 남기셨다. 끝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25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동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승가건강비법 [마·가·목] 신비의 나무”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에게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께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마”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비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루타 소개)비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비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현머리를 걷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어 속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전화번호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m²(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문의 : 010-8442-4444 (상담)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368